

## 질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보고하는 두 권의 책

이구용\_임프리마코리아 에이전시 부장·번역가

하나의 자연 질서체계가 무너지면, 그간 균형을 이루고 있던 다른 질서체계도 연쇄적으로 붕괴된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이며, 한편 비극적인 파국을 맞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오래 전부터 고전문학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그렇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들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굳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발표된 고전古典의 예를 살피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산에 사는 짐승들이 변하고 물에 사는 생물들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변화형태가 발전적이지 못하고 퇴행적이거나 기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연속선상에 있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이 지구의 불행이다. 이것은 서두에 언급한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는 과정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인간은 마련해야 한다. 물질문명에 의해 환경과 생태가 짓밟혀 망가져 가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구촌에 발을 딛고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나서야 풀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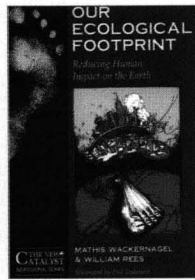
필자는, 오늘날 이 지구촌이 왜 그토록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현상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살피고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캐나다의 뉴소사이어티 출판사가 펴낸 《우리의 생태학적 발자국 Our Ecological Footprint》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촌 곳곳에서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이상 기후현상과 그에 따라 도

래할 수 있는 인류의 끔찍한 미래를 전망한 것으로 2001년 미국의 하이페리온 출판사가 펴낸 《다가오는 폭풍우 The Coming Stor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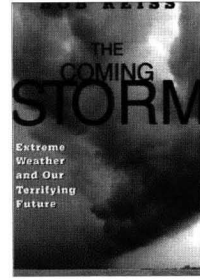
먼저, 이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의 생태학적 발자국》이다. 코스타리카의 '지구협의회 Earth Council'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티스 왜커내겔과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있는 공저자 윌리엄 리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인류의 행보를 좌시하면서 묵묵히 지원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류의 기술문명과 환경 생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나아가 지구가 제공하는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 보호를 위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더 이상 인류와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 환경과 자연 생태를 위한 정책 연구가들을 포함하여,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저자는 수정구슬을 들고 우스꽝스런 표정을 한 예언가의 삽화를 보여주고 있다. “생태학 전문가들은 미래를 점쳐 달라고 내게 주문을 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수정구슬을 통해서도 그 미래에 대한 점괘는 잘 나타나질 않는군요.” 한편 저자는 “농산물, 목재, 석탄 등의 자원에 대한 인류의 소비가, 1996년 현재 지구의 면적으로 견주어 볼 때 30퍼센트에 달하며, 앞으로 생태계의 자원을 더 이상 고갈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

# Agent Briefing



**원제** Our Ecological Footprint  
**제목** 우리의 생태학적 발자국  
**저자** 매티스 왜커내겔 & 윌리엄 리즈  
**출판사** 뉴스사이어터, 캐나다



**원제** THE COMING STORM  
**제목** 다가오는 폭풍우  
**저자** 블라이스  
**출판사** 하이페리온, 미국

재로서도 30퍼센트의 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겨울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 코스모스가 핀다. 이것은 온실에서서의 얘기가 아니다. 때 이른 시기에 핀 꽃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피어난 죄로 본래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금방 스러지거나 시들어버린다. 이상기온 탓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상기온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폭풍우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데.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활동했으며, 〈워싱턴 포스트〉와 〈아웃사이드〉 등 여러 매체에 다년간 기고를 해오 고 있는 블라이스가 2년 전에 발표한 책이 아직도 더 많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이상 기후현상과 그에 따라 도래할 수 있는 인류의 끔찍한 미래를 전망한 《다가오는 폭풍우》가 바로 그 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기상변화로 인한 재난이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지난 13년간의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살인적인 더위가 십여 차례에 걸쳐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한 세기에 몇 번 울까말까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허리케인이 벌써 몇 차례 미국을 덮쳤다. 또한 세계적인 홍수가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한 차례의 기록적인 가뭄까지 몰아닥쳤다. 그렇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런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재난을 막도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소설가로도 널리 알려진 저널리스트 블라이스는 독자들을 사로잡는 특유의 문체와 구체적인 묘사로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나타난, 가장 파괴적인 재난 앞으로 독자들을 안내한 후 기상학자들과 기상관련 연구자들의 시각을 통해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독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인도 하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저명한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한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세계 곳곳의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자처럼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증가하고 있는 열대성 질병, 장기간의 살인적인 무더위, 더욱 심각해지는 폭풍우, 기상이 불안정한 지역으로부터의 대량 이주현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한편 뉴올리언즈와 맨해튼의 서부 지역은 과연 폭풍으로 인해 물에 잠길 것인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 서부도시와 초원이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이 책은 미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 정책이 앞으로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앞서 언급된 심각한 내용들을 마치 소설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독특하게 구성되었으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는 데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필자와 같은 저작권 에이전트는 수많은 외서들을 국내 출판인들에게 소개한다. 그 중 일부는 한국어판 계약이 이루어져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반면, 또 일부의 책들은 아무리(?) 소개해도 좀처럼 임자를 만나지 못한다. 이 후자의 경우는 책의 질이 좋고 나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아니 그런 직업적인 신분을 넘어 그저 한 개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한 두 권의 책이 그에 해당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